

국외출장 보고서

1. 출장 개요

가. 출장 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국예술위원회의 공동 예술교류기금 조성을 위한 양국 문화 예술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 한-영 창조산업포럼 참석
- 공동 예술교류기금을 위한 MoU체결
- 영국 주요 기관 관계자 미팅 및 향후 교류방안 협의 등

나. 출장 기간

- 박명진 위원장 : 2016. 3.6(일)~3.12(토) / 5박 7일
- 류재수 : 2016. 3.6(일)~3.10(목) / 3박 5일
- 임수연, 송미선 : 2016. 3.6(일)~3.12(토) / 5박 7일

다. 출장 장소 : 영국 런던

라. 출장 인원 : 4명

- 박명진 위원장, 류재수 문학시각예술본부장, 임수연 국제교류부장, 송미선 국제교류부 대리

2. 출장 일정

구분	월일(요일)	출발 및 도착지	주요 일정	비고
1일	3월 6일(일)	인천→런던	○ 인천 출발 (13:00) ○ 런던 도착 (16:30)	KE 907
2일	3월 7일(월)	런던	○ 한-영 창조산업 포럼 참석 ○ 한-영 공동기금 MoU 체결	
3일	3월 8일(화)	런던	○ TATE 모던 국제교류 담당자 면담(11:00) ○ The Place 총괄 담당자 면담(14:00) ○ Southbank Centre 예술감독 면담(16:30)	
4일	3월 9일(수)	런던	○ 영국예술위원회(ACE) 사무총장 면담 (12:00) ○ 영국문화원(BC) 총괄 원장 면담 (12:00) ○ LIFT 축제 예술감독 면담(13:00) ○ Roundhouse 기관 담당자 면담 (15:30-16:30) ○ Hull 2017 담당자 면담 (17:30) ○ Magic Flute 공연 관람 ※ 류재수 본부장 런던 출국(18:50)	London coliseum 극장
5일	3월 10일(목)	런던	○ TATE 모던/브리튼 전시 관람 ○ Serpentine Gallery 예술감독 면담(14:00) ※ 류재수 본부장 한국 입국(14:45)	
6일	3월 11일(금)	런던→인천	○ 세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투어(11:00) ○ Barbican Centre 총괄 담당자 면담(14:00) ○ 런던 출발 (18:50)	KE 908
7일	3월 12일(토)	런던→인천	○ 인천 도착 (14:45)	

3. 업무 수행내용

가. 한-영 창조산업 포럼 참석 및 MOU 체결

- 1) 일시 : 2016. 3. 7(월) 10:00-16:40
- 2) 장소 : BFI NTF1
- 3) 주요내용

시간	주제	참석자
10:00-10:20	오프닝 세션 - 인사말 및 축사	인사말 : 아만다 네빌(영국 필름협회 회장) 축사 : 존 워팅데일(영국문화부 장관) / 김종덕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0:20-10:40	MoU 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국예 술위원회, 영국문화원 3자간 MoU체결	패션, 공예, 영화, 방송, 예술 분야의 5개의 양국 기관 대표 참석
10:40-11:25	VFX in 영화 쇼케이스	Peter Truckel (VFX Hub, 본머스 대학교수) Danny Duke (Gemma Timms-Outpost) 박용신 (디지털 아이디어)
11:40-12:35	애니메이션 쇼케이스	Oli Hyatt (애니메이션 UK) Tony Collingwood (Collingwood and Co.) 윤상철 (SK 브로드밴드) 홍성호 (Locus Corporation)
12:35-13:25	TV 쇼케이스	Mike Beale (ITV 스튜디오) Kirstie McLure (Pioneer Productions) 황진우 (CJ E&M)
14:25-15:10	패션 쇼케이스	Professor Frances Corner Caroline Rush (영국패션위원회) 이상봉 ((사)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15:30-16:15	정책 토론	Martin Fryer (주한영국문화원장) Baroness Neville-Rolfe DBE CMG 김종덕 장관 박승범 문화홍보관

나. 테이트모던

- 1) 일시 : 2016. 3. 8(화) 11:00-12:00
- 2) 장소 : 테이트브리튼
- 3) 주요 면담자 : Judith Nesbitt(국내 및 국제 프로그램 디렉터), 이숙경(시니어 큐레이터)
- 4) 주요 내용
 - Curator Intensive Program(큐레이터 집중 양성 프로그램) ARKO 한국 참가자 지원을 통한 참여 확대 제안
 - Dialogue Forum Program으로 Tate+(38개 미술관 조직)의 대규모 중국포럼(2015년)을 통해 관객개발, 디지털 기술, 소장품 구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

다. The Place

- 1) 일시 : 2016. 3. 8(화) 14:00-15:00

- 2) 장소 : The Place
- 3) 주요 면담자 : Kenneth Olumuyiwa Tharp OBE(대표), Eddie Nixon(극장 및 예술가 개발 부장), James Baggaley(경영부장)
- 4) 주요 내용
 - The Place 공간 투어 및 소개
 - 극장 1개와 연습실 11개가 있으며, 무용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전문학교로 BA 3년코스와 MA 1년코스가 있어 학위가 인정되는 곳(현재 한예종 출신 '김남윤' 무용수가 MA코스 중에 있음)
 - EDGE라는 석사과정 무용수로 모인 무용단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투어도 진행
 - 한국안무가(무용수)와의 협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음.
 - 그 이외에 한국과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우 오픈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 가능
 - 리서치 프로그램 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가능

라. Southbank Centre

- 1) 일시 : 2016. 3. 8(화) 16:00-17:00
- 2) 장소 : Southbank Centre
- 3) 주요 면담자 : Jude Kelly CBE(예술감독), Rachel Harris(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및 페스티벌 개발)
- 4) 주요 내용
 - 공간 및 사업 소개
 - 로얄 페스티벌 홀, 퀸 엘리자베스 홀, 퍼셀룸으로 극장이 3개가 있음. 매일 다른 장르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간을 대관해주기도 함.
 - 1년에 총 14개의 페스티벌이 개최되며, 1달에 1개 이상의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음
 - 주요페스티벌 : 인터내셔널 마임페스티벌(1월), 어린이를 위한 페스티벌 'Imagine'(2월), Women of the World Festival, WOW(3월), 코러스 페스티벌(4월), 러브페스티벌(6월), 아프리카 유토피아(9월), 런던 문학 페스티벌(10월), Being a Man, BAM(11월), 런던 재즈페스티벌(11월), 윈터페스티벌(12월) 등
 - 1년간이 페스티벌의 전체 주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음. 올해는 '죽음'으로 정하였으며, '17년도에는 'Power'로 정하여 진행할 예정
 - 모든 페스티벌은 커뮤니티와 학교, 소사이어티와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2017년에는 Nordic(7개국)으로 지정되어 북유럽 포커스가 될 예정
 - 모든 페스티벌이 인터내셔널이고 해외협력 가능

마. 영국예술위원회/영국문화원 회의

- 1) 일시 : 2016. 3. 9(수) 10:00-13:00
- 2) 장소 : Arts Council England 사무실
- 3) 주요 면담자 : Graham Sheffield(예술분야 총괄본부장, BC), Martin Fryer(주한영국문

회원장), Kate Arthurs(예술전략 본부장, BC), 용호성(한국문화원장), Darren Henley(사무총장, ACE), Mark Ball(예술분야 총감독, ACE), Nick McDowell(국제교류 부장, ACE), Nicola Smyth(국제교류 차장, ACE)

4) 주요 내용

- 이번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 예술가들 기량 향상 및 영국 시장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큼.
- 영국은 한국 예술가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IT) 및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음.
- 2년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되기를 희망함.
- 한국에서 예술산업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함.
- 예술교류에 있어서 장르는 시각, 공연예술, 문학으로 정하고, 중점사항으로는 Digital distribution, 예술과 장애(arts & disabilities), 예술과 노령화(aging arts)로 다룸.
- 영국에서는 런던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예술기관 혹은 축제를 선정할 예정
- 영국과 한국의 기관을 어떻게 매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봐야할 부분

마. Roundhouse

1) 일시 : 2016. 3. 9(수) 15:30-16:30

2) 장소 : Roundhouse

3) 주요 면담자 : Marcus Davey(대표 및 예술감독), Lucy Atkinson(시니어 프로듀서)

4) 주요 내용

- 공간소개 : 철도역을 개조한 공간으로 원형공간(1,700석 규모)의 극장이 1개 있으며, 작은규모의 연습실이 다양하게 있음.
 - 연습실은 음반제작, 랩매핑, 영상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악기대여도 할 수 있음.
 - 자체적으로 온라인 브로드캐스트(Roundhouse Radio)를 운영 하고 있으며, 공간에서 연습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음.
- 젊은예술가(Young emerging artist)대상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
 - * 젊은예술가는 11세~25세 사이를 뜻함
 - 한가지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라디오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시를 작성하고 퍼포먼스로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하는 등의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들이 많음.
- Call to Creative라는 인터내셔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 젊은 예술가와 함께 높은 품질의 작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모범 사례와 영감과 경험을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임.
 - 작년 제이미 컬럼(Jamie Cullum)공연 때, 이와 연계하여 100여명의 젊은예술가가 모여서 함께 잼(jam) 공연을 했었음. (유튜브 생중계도 함께 진행)

사. Hull 2017

1) 일시 : 2016. 3. 9(수) 17:30-18:30

2) 장소 : Arts Council England 사무실

3) 주요 면담자 : Francesca Hegyi (총감독)

4) 주요 내용

- 리버풀이 유럽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영국 정부에서 2009년부터 시작하여, 4년에 한 번씩 영국문화도시를 선정. 2013년에는 Derry/ Londonderry가 선정되었고, 이번에는 Hull이 선정되어 1년 동안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
- 기간 동안 Korea Focus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열려있음, 365일 진행되는 이벤트로 기간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함, 각 시즌에 따라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음,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함.
- 다른 나라(도시)와 연계해서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임.
 - 시에라리온(서아프리카), 아이슬란드, 로테르담, 덴마크 (2017, 유럽문화도시 선정)와 인터내셔널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음.
- 페스티벌을 참여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cutting-edge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예술가들은 새로운 관객을 만날 수 있을 것임. 또한 런던보다는 덜 복잡한 것도 장점

아. Serpentine Gallery

1) 일시 : 2016. 3. 10(목) 15:00-16:00

2) 장소 : Serpentine Gallery

3) 주요 면담자 : Hans Ulrich Obrist (전시 및 프로그램 디렉터)

4) 주요 내용

- 한·영 공동기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협력 가능성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중 10년 된 '마라톤'프로젝트가 있는데 젊은 예술가들에게 좋은 플랫폼이 되고 있음. *10월에 개최되며, 2일(토, 일) 동안 진행되는 페스티벌 형식의 프로젝트임.
 -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및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터내셔널 프로젝트
 - 올해 주제가 'Futurism'으로 한국예술가를 소개하기엔 좋은 프로젝트로 주제와 어울리는 참여 가능한 예술가가 있는 경우 5월까지 알려주면 좋겠음.
- 다른 프로젝트로 '89+'로, 89년 이후 출생한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인터내셔널 멀티 플랫폼 리서치 프로젝트
 - 2014년도에 '이상우' 한국 작가가 참여한 적이 있으며, 재능이 많은 젊은 작가로 주목을 받았었음.

자. Barbican Centre

1) 일시 : 2016. 3. 11(금) 14:00-15:00

2) 장소 : Barbican Centre

3) 주요 면담자 : Louise Jeffreys (예술 총감독)

4) 주요 내용

- 바비칸 센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모든 공연장르 및 전시, 필름상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며 많은 이벤트가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임.
 - 극장 소속 예술단체는 없으며, 레지던스 단체와 예술가가 있음.
- 길드홀음악연극학교가 같은 공간에 있으므로, 학교와 연계되어 젊은 예술가와의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며, 그 이외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내셔널 크로스 아트 프로그램(International, cross-arts programme)이 있으며, 작년 97명의 국가에서 참여했었음.
- 갤러리의 경우, 큐레이터들이 대부분 직접 전시기획을 하고 있음.
 - 4~5명의 큐레이터가 있으며, 전시공간이 크게 1개와 작게 2개 정도 있음.
 - 전시기획을 할 때 나라를 중심을 보기보다는 그 주제에 맞는 작가를 초대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4. 출장 효과 및 출장결과 활용계획 등

가. ARKO-ACE-BC 3자간의 MoU 체결을 통해 2016-2017 한·영 예술교류 프로그램 사업 추진

나. 3자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 ARKO-ACE 기금 조성 및 지원, 예술가(단체) 선정 및 기금 지원 등
- 사업추진 과정에서 BC(영국문화원) 협력 지원

다. 단순 교류프로그램이 아닌 한국 예술가(단체) 기량 향상 및 영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가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

5. 사진자료

가. 한·영 창조포럼 MoU 체결



왼쪽부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대런 헨리 영국예술위원회(ACE) 사무총장, 키아란 디반 영국문화원 CEO, 존 위팅데일 영국문화통신스포츠부(DCMS) 장관

나. 영국기관 관계자 면담



The Place 공간 투어 및 관계자 면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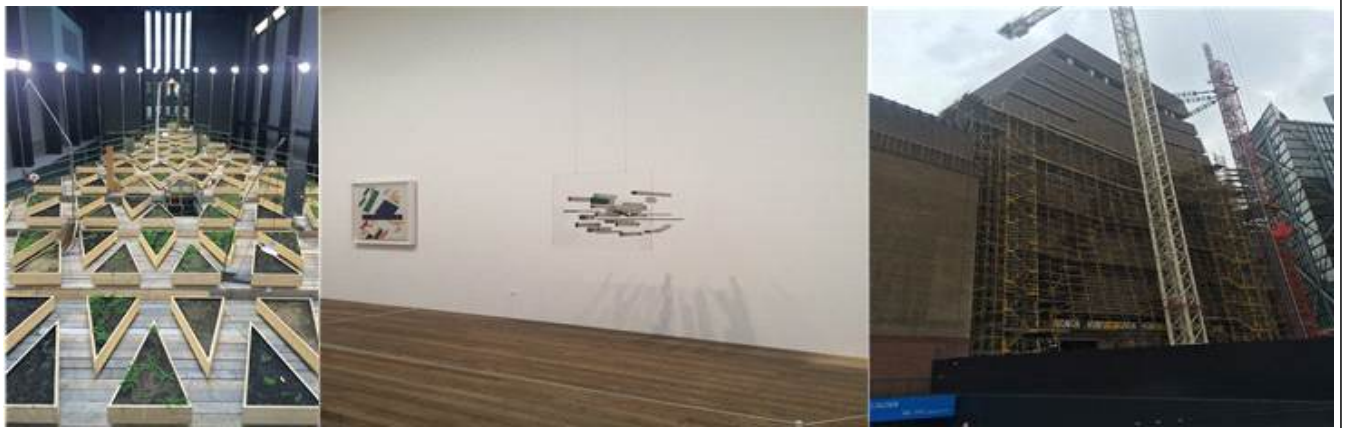
Southbank 공간 투어 및 관계자 면담 모습



영국예술위원회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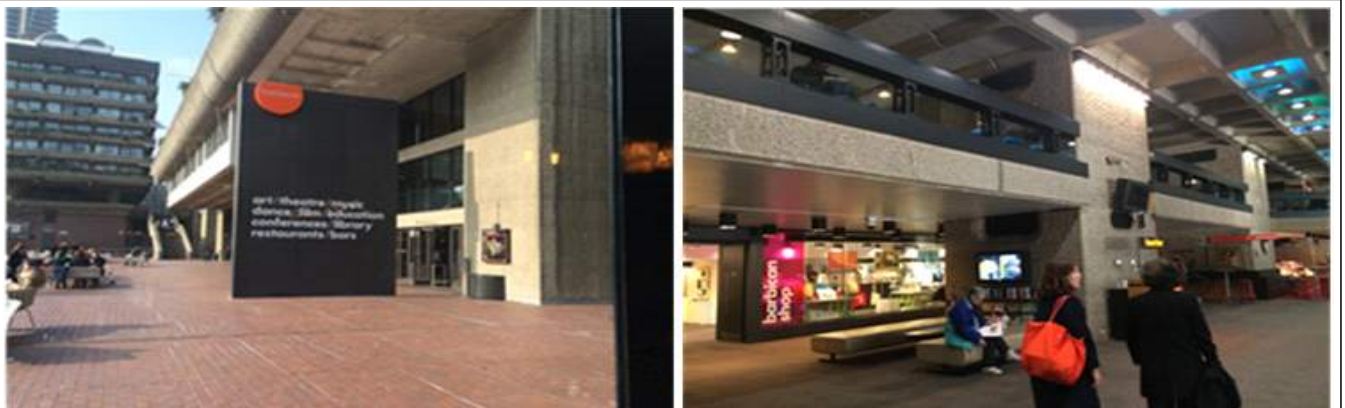


라운드 하우스 연습공간 모습



테이트모던 전시 모습

테이트 모던 '테이트 플러스' 공사모습



바비칸 센터 전경 및 내부 모습